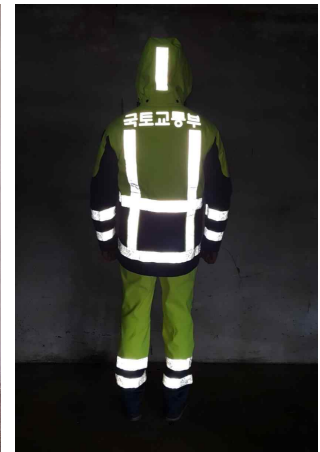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	
		배포일시	2019. 2. 14.(목) / 총 2매(본문 2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	담 당 자	과장 이정기, 사무관 박지윤, 주무관 이근복 ☎ (044) 201-3909, 3915, 3916		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4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토부 도로보수원, 형광노랑색 새 근무복 입는다 국제 안전규격 갖추고 방수성·통기성 높여...상반기 중 지급키로

- 지역마다 다른 색상, 디자인으로 운영돼 온 국토교통부 도로보수원 근무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디자인 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도로보수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로보수원 근무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.
 - 그동안 도로보수원 근무복은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별 색상, 디자인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이미지 상징이 부족하고,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새롭게 마련된 근무복은 세련미를 갖추면서, 야간에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.



○ 국토교통부는 3차례의 품평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 보수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, 실제 착용평가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 안전규격*에 부합하도록 최종안을 완성하였다.

* (ISO 20471) 운전자가 시속 60km/h 이상 주행하면서도 도로보수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근무복의 요구사항(‘형광노란색’ 및 ‘재귀반사테이프’ 최소면적 등)을 규정

○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근무복은 형광 노란색 바탕에 고성능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주·야간 안전도를 확보하였으며, 방수성, 통기성,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소재로 만들어 작업 만족도를 높였다.

□ 신규 근무복은 2월 입찰공고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.

○ 국토교통부는 기존 근무복과 신규 근무복을 2020년까지 혼용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예산여건에 맞춰 근무복 교체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도로국 백승근 국장은 “새로 개발된 근무복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의 국토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” 이라 밝혔다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박지윤 사무관(☎ 044-201-3915)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